

하나하나 밝히는 우리들의 대림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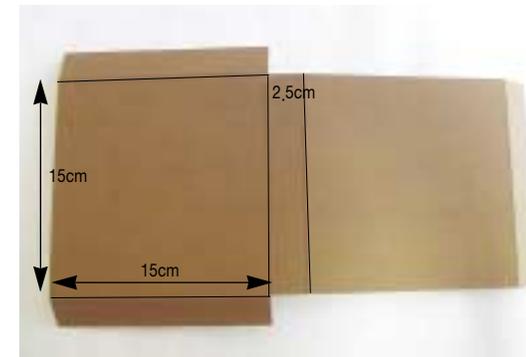
유경희

이번 달에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시작됩니다. 일 년에 한 번씩 꼭꼭 준비해야 하는 대림 시기 교리 내용은 매년 같을 수밖에 없겠지만, 전하는 방법은 항상 새로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림초'에 대해 색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어 교리 시간에 활용해서, 아이들이 '대림초'에 관해서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



준비물 : 하드보드지(일반, 갈색), 양면테이프, 가위, 풀, 자, 칼, 색지, 벨크로테이프, 글루건, 대림 시기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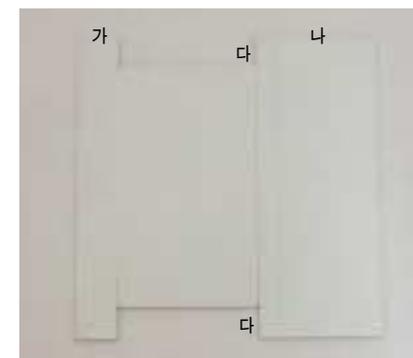
※ '대림 시기 설명' 은 디다케 홈페이지 'http://didache.eduseoul.or.kr/→자료방→디다케 자료방'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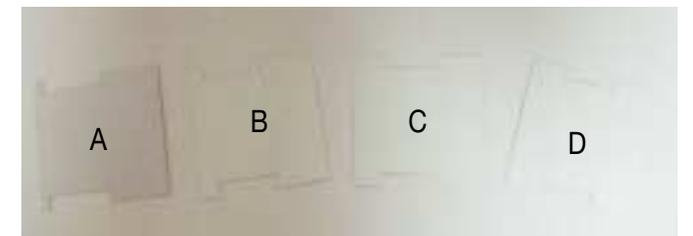
① 갈색 하드보드지에 사진과 같은 15cm(가로)×15cm(세로)×2.5cm(높이)의 직육면체 도면을 그려 잘라 내고, 검정 선을 따라 칼집을 내어 접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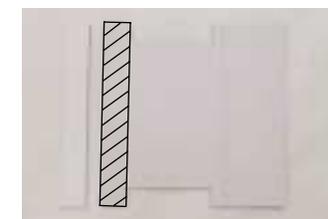
② 일반 하드보드지를 15cm(가로)×15cm(세로)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4개 잘라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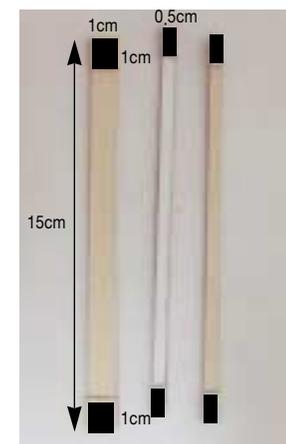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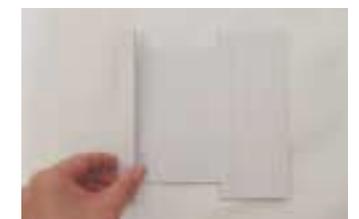
③ 자른 하드보드지를 각각 제시된 이를 참고하여 사진처럼 자른다.
A : 가(1cm), 나(7cm), 다(1.5cm), B : 가(2cm), 나(6cm), 다(1.5cm), C : 가(3cm), 나(5.5cm), 다(1.5cm), D : 가(4cm), 나(5cm), 다(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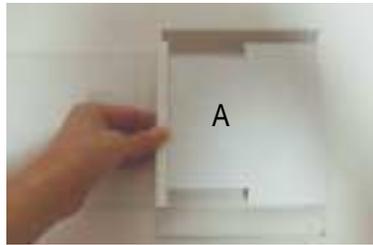
④ ③의 네 개의 조각에 각각 사진처럼 오른쪽 반 정도만 갈색 색상지를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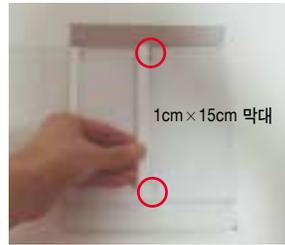
⑤ 뒤집어 흰 면이 나오게 한다. A, B, C에만 사진처럼 왼쪽 빗금 친 부분('가' 부분)에 딱 맞게 하드보드지를 잘라 한 겹 더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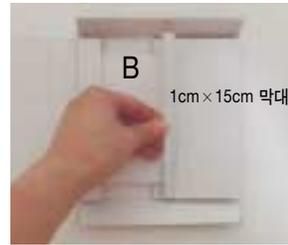
⑥ 하드보드지를 1cm(가로)×15cm(세로) 2개, 0.5cm(가로)×15cm(세로) 2개씩 긴 막대 모양으로 자르고, 사진의 검정 부분의 모양에 맞게 하드보드지를 잘라 한 겹 더 붙인 후 그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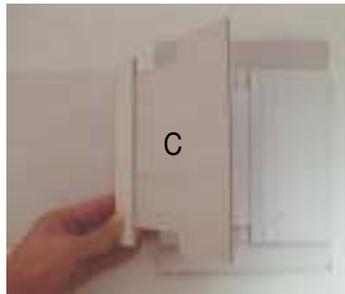
⑦ ①에서 만들어 놓은 직육면체 도면을 뒤집어 놓고, 사진처럼 그 오른쪽 위에 A를(⑤에서 작업한 면이 왼쪽에 보이게) 올려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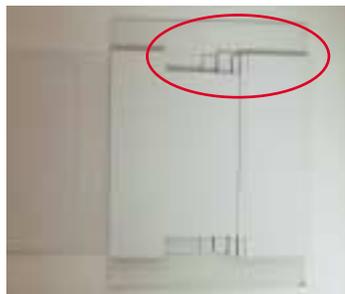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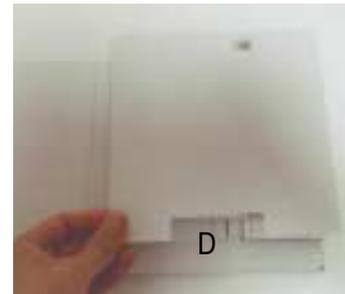
⑧ ⑥에서 만든 1cm(가로)×15cm(세로) 막대의 양면테이프를 붙인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사진처럼 A에서 홈이 파이는 부분에(동그라미 표시, '나' 부분 왼쪽 옆) 딱 맞추어 (①에서 만든 직육면체의 면)에 붙인다.



⑨ 다시 ⑧ 위에 B를 전과 같은 방식으로 올려놓고, 1cm(가로)×15cm(세로) 막대 하나도 역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⑦에서 직육면체에 올려놓은 A의 면)에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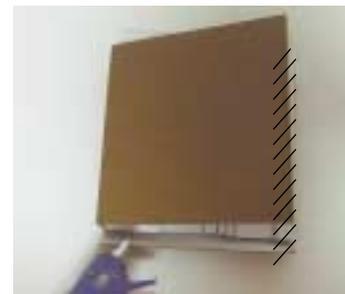
⑩ 다시 ⑨ 위에 C를 전과 같은 방식으로 올려놓고, 이번에는 0.5cm(가로)×15cm(세로) 막대 하나를 역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붙인다. 그 위에 D도 같은 방식으로 올려놓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0.5cm(가로)×15cm(세로) 막대를 붙인다.



⑪ 다 붙이고 나면, 사진과 같은 모양이 된다.



⑫ 일반 하드보드지로 2cm(가로)×15cm(세로) 막대 세 개를 잘라 겹쳐 붙인 후, ⑪의 맨 오른쪽 위에 붙인다.



⑬ 작업을 하지 않은 직육면체의 왼쪽 면을 접어 작업한 면을 덮고, 사진에 빗금으로 표시한 한쪽 부분만 빼고, 글루건을 이용해(직육면체의 덮은 면들을) 붙인다. 사진에서 보이는 앞면이 실제 교구에서는 뒷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 붙이고 나서 세로 방향으로 한 번 뒤집는다.



⑭ 갈색 하드보드지를 7cm(가로)×2cm(세로)로 잘라 직육면체의 두께 만큼 칼집을 내 접어 준 후, 직육면체의 아랫면과 뒷면에 벨크로테이프를 이용해 붙여 잠금 장치를 만든다.



⑮ 앞부분과 뒷부분(대림 시기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으면 좋다.)을 꾸민다.



색지로 대림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층층이 있는 하드보드지를 맨 위부터 하나씩 빼서 그 위에 순서대로 붙인다. 교리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대림초를 순서대로 빼 보며, 그 색깔과 의미에 대해 가르친다.

유경희_보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학교 사당5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초등부 주일학교 13지구 월례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개발팀 교사로도 일하고 있다. 아동미술지도자과정 수료, 어린이북아트 자격증 취득 등, 교리 수업에 다양한 미술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 중이다.